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

새로 발굴된 고려 25대왕의릉

최근 공화국의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와 문화성 민족유산보호국 조선민족유산보존사, 송도사범대학 역사학부가 공동으로 역사유적들에 대한 조사 및 발굴사업을 진행하여 고려 25대왕의릉을 새로 발굴하였다.

고려시기의 왕릉급무덤으로 인정되는 벽화무덤은 개

단씩 낮아진 2구획과 3구획에는 각각 돌사람상이 한쌍씩 세워져있으며 4구획에는 제당터가 있다.

정교하게 가공한 돌로 규모있게 쌓아만든 무덤칸의 크기는 남북길이 365cm, 동서너비 300cm, 높이 235cm이다.

이 발견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고학회의에서는 이번에 발굴된 무덤이 건축형식과 규모, 유물들로 보아 14세기에 만들어진 왕릉급무덤이며 그 무덤의 동쪽으로부터 250m 떨어진 곳에 경효(충렬)왕의 안해인 안평공주의 무덤(1979년 발굴)이 있고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여러 문헌에도 경효왕릉이 개성부에서 서쪽으로 12리정도 떨어져있다고 기록되어있으므로 고려 25대왕(1236년-1308년)의릉으로 볼수 있다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인정하였다.

고려시기 25대왕인 경효왕의 무덤을 새로 발굴함으로써 민족문화유산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본사기자



천연건강식품 - 푸른인삼씨원액

공화국에서 새로운 건강식품인 푸른인삼씨원액이 사람들의 건강에 좋은 작용을 하는 것으로 하여 호평을 받고 있다.

푸른인삼은 남새작물로서 인삼과 맛을 정도 약리

효과가 뛰어나고 영양학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푸른인삼씨를 단백질화하고 발효처리하여 만든 푸른인삼씨원액은 체내에서 많은 질병의 원인으로 되는 로



또한 동맥경화, 고혈압을 비롯한 각종 심장혈관계통질병과 비만증, 녀성들의 갱년기장애방치에도 아주 좋으며 각종 피부병치료와 미안효과도 볼수 있다.

이 원액을 마시면 피부충, 높은 혈관세척, 장세척의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하여 그 수요는 날이 높아지고 있다.

본사기자

옛날 함치우라는 사람이 전라도 감사로 있을 때였다. 어느날 젊은 양반형제가 판가에 송송하리 찾아왔다.

일인즉 큰 가마와 작은 가마 두개를 놓고 서로 큰것을 가지겠다고 하다가 결판을 내지 못하여 판결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공정한 소송판결

이들의 말을 듣고난 감사는 탄식을 했다.

《허, 양반이라는 집의 자제들의 의리가 이리하니 세상명분을 어찌 세우랴!》

허구르게 웃고난 감사는 아전들에게 소리쳤다.

《저 가마를 꺼서 저울로 달아 똑같이 나누어주거라!》

이 말에 놀이 휘둥그레진 두 형제는 서로 쳐다보다가 감사에게 자기들의 소송을 취소해달라고 빌었다.

그러나 형을 받은 아전들은 도끼로 가마를 깨서 저울로 달아 두 형제에게 똑같이 나누어주었다.

최초박만 받아안고 울상이 된 양반형제는 팔복건이었다.

본사기자

시능과 흉내

《시능》과 《흉내》는 언어실천에서 가끔 혼동되어 쓰이는 레가 있다.

《시능》은 어떤 동작을 진짜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하는것이라는 뜻이며 《흉내》는 남의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또는 그 비슷이 본따서 하는것을 이르는 말이다.

본사기자

도토리야 호박

한 사람이 도토리나무 밑에 앉아서 울러다보며 중얼거렸다.

《그것 참 이상하군. 저렇게 큰 나무엔 작은 도토리가 열리고 키작은 호박덩굴에는 큰 호박이 열리니 꼭 반대로군!》

이때 바람이 우수수 불더니 도토리 한알이 떨어져 그의 코잔등을 때렸다.

《앗, 고놈의 도토리야 뭘 짜다. 도토리알이 작으니까 대항이지 호박만한것이 열렸으면 내 키가 어떻게 될런 했나. 아야 그래서 높은데 달리는 열매는 호박만큼 큰 것이 없는게로구나!》

징벌의 검 (3) 글 림 왕성, 그림 김윤일

도적의 소굴을 치다

조천구는 며칠전 비인성도둔곳을 떠나 배이포(창원)로 갔다.

그가 비인성에서 쉽게 자리를 뜬것은 그곳 만호와 의가 맞지 않는데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여러해 무관으로 살아온 그는 보다 큰 사반을 예감하였다. 왜적의 소굴을 쳐야 한다는 백성들의 원한과 봉건정부의 움직임이 속속들이 느껴졌던 것이다.

(왜적들의 소굴을 치는 데 내 한몸 아깝잖아!)

그는 이런 결심을 하고 부랴부랴 배이포로 왔다.

그의 예감은 틀린 것이 아니었다. 조천구는 아침에 수십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포구로 나왔다.

배이포에는 아직도 숨어사는 쯤시마산인들이 적지 않았다. 1389년 고려함대의 쯤시마공격후 봉건정부에 예결복결하여 건너와 살기 시작한 왜인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 연해의 군사기밀을 탐지하고 풍기를 문란케 하는 등 폐단을 보였다.

봉건정부에서는 왜인들이



2021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들

력기 선수 리청송

그는 제2차 아시아청소년경기대회 남자력기 62kg급경기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였으며 2014년 아시아청년 및 청소년력기선수권대회와 2019년 아시아력기선수권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그는 더욱 분발하여 자기 몸무게급경기에서 거이어 새 기록을 세울 열의안고 평시훈련에서 땀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제2차 아시아청소년경기대회 남자력기 62kg급경기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였으며 2014년 아시아청년 및 청소년력기선수권대회와 2019년 아시아력기선수권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그는 더욱 분발하여 자기 몸무게급경기에서 거이어 새 기록을 세울 열의안고 평시훈련에서 땀을 아끼지 않았다.

본사기자

피속의 지방질을 없애는 작물

영양가 높은 참나무버섯에는 16가지의 아미노산(그중 7가지는 필수아미노산)과 여러가지 불포화지방산, 각종 비타민, 피속의 지방질을 없애는 물질들이 있다.

또한 참나무버섯은 혈압을 낮추고 소화작용을 하며 항암작용 등 여러가지 효과를 나타낸다.

가 지

가지에는 여러가지 비타민이 들어있는데 특히 보라색가지에는 다른 남새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비타민PP가 많이 들어 있다. 비타민PP는 세포의 집착성과 신피질의 탄력성을 높이고 출혈을 막는다.

오 이

오이는 청열, 갈증해소, 리뇨작용을 한다. 오이에 들어있는 섬유소는 장관에서 음식찌꺼기를 내보내는것을 촉진하는 한편 콜레스테롤흡수를 줄인다.

특 두

여름철에 누구나 즐겨 먹는 시원하면서도 맛이 좋은 특두량은 더위를 타지 않게 하는 보검음료이다. 또한 특두는 피속의 지방질을 줄이고 심장을 보호하며 관상동맥질환을 예방한다.

기세충천한 군사들이 물에 오르며 놈들을 초죽대기 시작하였다.

창검이 번득이었고 흙먼지가 뿌옇게 일었다.

피상한 비명을 지르며 왜적들이 꼬꾸라졌다. 쯤쯤요리포구의 놈들은 죽고 사로잡히고 도망쳐버렸다.

사로잡힌 왜구들이 리종무의 진막으로 끌려왔다. 상투를 뒤투수에 붙인 왜적들은

리종무는 은몸을 부들부들 떨며 연신 머리를 조아렸다. 그러나 건신 거머쥔 도주에게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왜구의 소굴에 대한 소탕전이 벌어졌다. 왜구들의 배 150척을 나포하여 불사르고 왜구의 집 2천여호를 불살랐으며 수백의 왜구를 요정내로 끌어들였다.

조선함대의 불의의 공격에 혼비백산한대다가 식량도 못가지고 뿔뿔이 도망쳐 숨어버린 놈들은 하나둘 투항해나왔다.

쯤시마도주놈도 하는수없이 손을 들고나왔다. 리종무는 도주에게서 다시는 우리 바다에 얼선하지 않겠다는 대답을 받고 7월 3일 원정함대를 거느리고 거제도도로 돌아왔다.

왜구의 주력이 명나라로 락질을 갔기때문에 놈들을 쟁그리 소탕하지는 못했지만 이 도적의 소굴에 대한 공격은 은을 내었다.

두차례나 호된 불벼락을 맞은 놈들은 함부로 우리 나라 바다에 덤벼들지 못하였으며 쯤시마에 살고있던 왜구는 그 후 다른 섬으로 자리를 옮기기까지 하였다.

바다가는 한결 조용해졌으며 백성들이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수 있게 되었다.

쯤시마원정은 조선인민은 남을 건드리지 않지만 우리나라를 침입하는 원수들을 철저히 징벌한다는것을 보여 주었다.

(끝)